

'비리 복마전' 서영대 총장 자녀 부당 채용

교육부 감사...배우자 명퇴수당 გადა 지급·공과금 미납에도 상여금 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교육부 "임원 모두 승인 취소해야"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가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총장 자녀들을 채용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위배에도 정관을 고쳐 자격미달인 총장의 배우자에게 역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고,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수십차례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광주 시 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김모 총장은 아들을 부

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 조치를 당하게 됐다. 서영대는 교직원으로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의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하기도 했다. 채용에 관여한 일부 직원은 해당자에 대해 '법무 대학원 진학 예정'이라고 밝힌 점 역시 경력이 불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의 딸인 A씨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미

■자녀 부당 채용
'대학원 진학 예정'도 경력 인정
아들 5급으로 상향해 특별 채용
서영대 3년 11개월 근무 딸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조교수 채용

■명퇴수당 조건 완화
'재직 20년 이상'→'15년 이상'으로 바꿔
18년 근무 배우자 수당 1억1788만9천원 지급

달자인 A씨를 조교수로 채용했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A씨에 대한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총장의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 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영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서영대는 또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연체료 1297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총장 등 15명의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 지급했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또 교육부에서 종합감사 실시가 통보되자 허위로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감사자료에도 제외하는 등 회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교직원 개인카드도 미리 결제한 항목 중 유휴수

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또 교직원 8명은 경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 1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서영대와 법인을 상대로 기관경고·주의 등 34건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2억9198만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명했다.

서영대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존중해 시정·조치 사항을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라면서도 "구성원에 대한 불리한 신분상 조치(해임, 임원 승인 취소 등)를 부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무등산 증심사 공양간·요사채 전소

빛물받이 용접공사 중 불꽃 튀듯 5시간만에 진화...문화재 피해 없어

광주의 대표 사찰인 증심사에서 불이나 공양간과 요사채가 전소됐다.

불은 다행히 인근 대웅전 등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증심사 스님들과 방문객이 대피했고 무등산이 연기에 휩싸이면서 등산객들이 산행을 중단하고 내려오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윤림동 증심사 내 식당(공양간)과 요사채(스님의 숙식 공간·행원당)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 20여분만인 오후 3시 1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증장비와 소방헬기까지 동원했으나 화재 건물에 목조 한식 기와 건물이라 기와장을 뜯어내 가며 불길을 잡느라 완전까지 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식당과 요사채로 쓰던 건물 1개 동(연면적 165㎡)이 완전히 불에 탔다.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는 지장전, 대웅전 등이 인접해 있는데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증심사 내 보물, 광주시 문화유산 등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심사 일대는 지난 1984년 2월 17일 광주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으며, 사찰 내에 보물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시 유행문화유산 삼층석탑, 오백전, 석조보살입상, 약사암 등이 있다.

화재 당시 이곳에서는 빛물받이 용접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튀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됐다.

사찰 관계자가 소방당국에 화재 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재 발생 지점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



2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윤림동 증심사의 공양간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식당과 숙식 공간으로 쓰이는 공양간·요사채가 전소됐다.

해 소화기 사용 등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심사 입구에는 주말을 맞아 가을 산행을 나선 등산객들과 화재 진압 중인 소방차, 경찰차 등이 뒤섞여 소란을 빚었다. 등산객들은 매캐한 냄새와 연기 때문에 불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앞다투어 산을 내려갔다.

주말을 맞아 5살 딸과 아내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신대용(42)씨는 "등산 도중에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등산을 포기하고 하산하기로 했다. 더 올라갔다가는 아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았다"며 "날씨가 좋아서 간단에 산에 왔는데 불이 이어지지 않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고 한숨을 돌렸다.

등산객 심모(60)씨도 "상쾌한 산 공기 마시러 온 건데 불이 나서 연기가 너무 심하니 오히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증심사는 대한불교조계종제21교구 송광사의 수말사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이다.

증심사는 860년 통일신라 말기 사자산문을 열었던 철갈선사 도운이 건장한 이후 여러 차례 화재에 휘말렸다.

1597년 정유재란 때 큰 불이 나 오백전 외 건물이 모두 소실됐으며, 이후 1609년 석경(釋經)·수장(修裝)·도광(道光) 선사가 4차 중창(재건립)했다.

1951년에는 한국전쟁에 휘말려 오백전과 회승당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화재로 불타버렸고,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1970년 주지 승려 현광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대웅전과 지장전을 복원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지장전, 승방, 일주문 등을 복원했으며, 화재가 발생한 요사채 행원당은 1989년 복원됐다.

/윤영기 기자 yjyou@kwangju.co.kr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전동킵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국 네번째'

5년간 438건 달해

광주지역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근(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년 8월)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광주 면허 취소건수는 438건에 달했다. 전국 면허 취소 1만 1904건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지역이 517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2626건), 인천(854건) 순이다. 광주지역은 인구가 적은데도 PM 음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9년 3건, 2020년 4건에 그쳤으나 2021년 48건, 2022년 149건, 2023년 15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8월까지 84건이 집

계됐다.

전남은 2019년과 2020년 각 1건씩 집계됐고 2021년 33건에서 2022년 81건으로 증가했지만 1년만에 2023년 63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22건의 면허가 취소되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세종(50건), 제주(70건), 강원(148건) 순으로 낮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이 내놓은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서도 광주는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광주에서는 지난해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건수를 보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수는 341명이었다.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PM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연맹 "국가 역할을 개인에 전가"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전액을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 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지급을 파기하고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열 손가락 없는 등반가' 김 대장은 2021년 7월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됐다. 외교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해 3차례 띄웠지만

김 대장을 찾지 못했다. 헬기 비용은 당시 회당 2만5000달러였다. 정부는 헬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결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은 "항소심 판단은 1심보다 후퇴했다. 국가에서 훈장까지 준 김대장의 구조는 국가의 역할인데도 비용은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영사조력명장관 재량에 의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광주산악연맹 등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한 건 너무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현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넛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소로 36